

News

'인터넷은행 3호' 토스뱅크 본인가 신청

조선비즈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 오는 4~5월쯤 결론이 날 걸로 예상. 금융당국의 심사 통과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은행 업계에서는 토스뱅크가 무난히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가 요건에 있어 큰 결격 사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

증시예탁금 한때 70조, 은행예금 이탈 10조원…1월에도 계속되는 '뭉칫돈 대이동'

e대한경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1월 말 요구불예금은 637조8555억원을 기록, 한 달 사이 9조9840억원 감소 투자자예탁금은 지난해 말보다 10.8% 증가, 주요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한 달 전보다 103.1% 늘었으며 가상화폐 거래액 또한 급증

'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

연합뉴스

주식 보유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3.6%는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따른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공급 비중 확대할 것"

조선비즈

윤 행장은 올해 주요 전략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밝힘 구조적 한계기업에는 구조 개선을 돋는 한편, 금융지원 조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잠재된 리스크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

여의도 증권가 주말마다 서버 증설 '분주'…주문 폭증 탓

연합뉴스

증권사들이 작년부터 서버 용량 증설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고객 수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증권사들이 전산 시스템 용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엔 고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증설 작업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예정"

マイ데이터 무분별 가입 막을 '방지턱' 만든다

한국경제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지만 유출 사고 가능성 줄이기 위해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들이 필요한 만큼만 사업자를 고를 수 있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손보사 "보험료 인상 필요"

아이뉴스24

1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9~84.0%로 전년 동월(87.8~95.9%) 대비 5~11% 가량 개선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던 2019년과 비교했기 때문일 뿐 여전히 만성 적자상태

메리츠화재, 보통주 1주당 1280원 배당 결정

이데일리

메리츠화재가 보통주 1주당 1280원의 현금배당(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7.9%며, 배당금 총액은 1510억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